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분석

김 지 경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과 지출비용이 가구특징과 어머니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고, 가구 및 어머니의 특징이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2002년도)자료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을 가구 및 어머니 특성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이용률 및 가구 총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Censored normal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 가구의 이용률이 비취업모 가구의 이용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보육시설의 확충과 재정지원이 취업모 가계의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월평균 가계의 지출비용의 수준이 21만7천원이라는 분석결과를 고려 해 보면 보육시설의 이용이 가계의 자녀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자녀의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가구의 지출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시설의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비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적절한 지원수준이 결정되어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설의 이용이 낮다는 본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제까지 저소득층 또는 취업여성 등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온 정부의 선별주의적인 접근방식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설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고 정부가 보편적인 접근으로 자녀양육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면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고소득의 가구 또는 고소득·전문직 취업여성들의 보육부담도 공공성이 보장된 보육시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